

**2023~2027년  
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**

2023. 8.

기 획 재 정 부

# 순 서

I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.....	1
II. 2023~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 .....	2
III. 2023~2027년 재정운용 방향 .....	6
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10
V. 재정혁신 추진방향 .....	14
[참 고]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22

---

## I 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

---

-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-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·보완
- '04년 최초 수립('04~'08년 계획) 이후 '07년부터 국회에 제출
- 국가재정법 개정('14년)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(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)
-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
-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,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

### <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>
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(기획재정부 → 각 부처, '22.12월)  
\*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('23.1월말)
-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,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·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('23.1월~)
- 분야별·지역별 예산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('23.4~8월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·운영 ('23.5월~)
-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('23.6.28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('23.8.2)
-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 의견수렴 ('23.8.23)
-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('23.9.1)

## II. 2023~2027년 경제여건 및 전망

### 1 대내외 경제 여건

#### 세계경제

- (2023년) 글로벌 고물가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, 서비스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, 글로벌 긴축 등으로 교역 및 성장세 부진
  - \* 글로벌 PMI(p) : <제조업> ('23.1/4)49.5 (2/4)49.3 <서비스업> ('23.1/4)52.4 (2/4)54.9
- 최근 세계경제는 원자재\*·금융시장 변동성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,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  - \* 러·우 전쟁 향방, 사우디 등 OPEC+ 감산 영향, 흑해곡물협정 중단 영향 등
- 향후 서비스업 회복세는 점차 둔화되겠으나, 재고조정, IT 수요 회복 등으로 교역·제조업은 점차 회복 전망
- (2024년 이후) 중장기적으로 물가·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 되겠으나, 리스크 요인 잠재
  - '24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, 그간 부진했던 세계교역·제조업 개선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회복 흐름 전망
    - \* 세계교역량 전망(%) : <IMF> ('23)2.0→('24)3.7 <OECD> ('23)1.6→('24)3.8
  -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추이, 글로벌 분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, 지정학적 갈등 등 높은 불확실성 지속

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(%)

		'23	'24	'25	'26	'27	'28
세계 성장률		3.0	3.0	3.2	3.2	3.1	3.0
- 선진국	성장	1.5	1.4	1.8	1.9	1.8	1.8
	물가	4.7	2.8	2.1	1.9	1.9	1.9
- 신흥국	성장	4.0	4.1	4.0	4.0	3.9	3.9
	물가	8.3	6.8	5.2	4.7	4.6	4.4

\* 출처 : World Economic Outlook(IMF, '23~'24년은 7월 전망, '25년 이후는 4월 전망 기준)

## 국내경제

- (2023년) 물가·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,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개선 조짐

\* 소비자물가 상승률(%) : ('23.1) 5.2 (2) 4.8 (3) 4.2 (4) 3.7 (5) 3.3 (6) 2.7 (7) 2.3  
 \* 취업자수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23.1)41.1 (2)31.2 (3)46.9 (4)35.4 (5)35.1 (6)33.3 (7)21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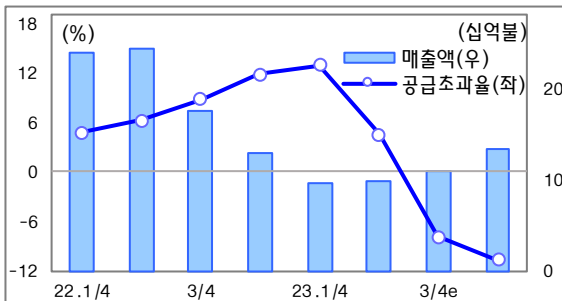
- 하반기로 갈수록 IT 업황 회복, 중국인 방한관광객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전망

\* 성장률(전기비, %): ('22.1/4) 0.7 (2/4) 0.8 (3/4) 0.2 (4/4)△0.3 ('23.1/4) 0.3 (2/4) 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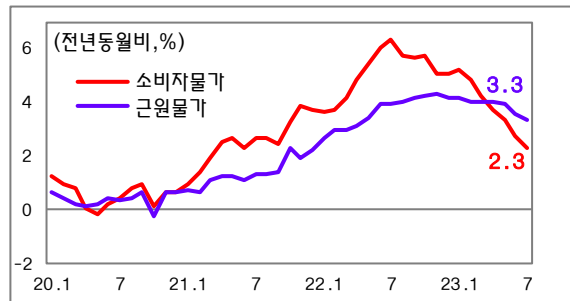
- 다만, 美·中 등 주요국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상존

-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겠지만,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,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 지속

글로벌 D램 공급초과율 및 매출 전망



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



- (2024년 이후) '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

- '24년은 글로벌 물가안정 흐름, 세계교역·제조업 개선, IT업황 회복 등으로 우리경제 회복세 강화 전망

\* '24년 IMF 주요국 성장 전망(%) : (韓) 2.4 (선진국) 1.4 (美) 1.0 (유로존) 1.5 (英) 1.0 (日) 1.0

-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세, 글로벌 경기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

-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,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혁신 및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필요

## 재정수입

- (국세수입) 경기변동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으나,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
  - '23년에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'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
  - '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나,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
- (국세외수입)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나, 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법정 부담금 등은 변동 가능성도 존재
  - 기금수입은 現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
    -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가입자 확대, 임금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 증가 예상
  - 세외수입은 특이소요 등으로 변동이 있으나,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

## 재정지출

-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,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
    -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
    - 첨단과학기술 투자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소요도 상존
  -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
    -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, 부처간·부처내 유사중복 사업, 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여 재정누수 차단
    - 절감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를 위해 재투자
- ⇒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 낭비요인은 철저히 제거하는 가운데,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, 과감하게 투자

'22~'26년 계획 대비 '23~'27년 부처요구

(단위 : 조원, %)	'22	'23	'24	'25	'26	'27	증가율
▪ '22~'26년 계획(A)	607.7	639.0	669.7	699.2	728.6	-	4.6
▪ '23~'27년 부처요구(B)*	-	638.7	723.8	776.5	824.9	869.6	6.3**
▪ 계획대비 추가요구(B-A)	-	△0.3	54.1	77.3	96.3	-	-

\*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('23.1월말)

\*\* '24~'27년 연평균 증가율

---

### Ⅲ. 2023~2027년 재정운용 방향

---

#### 1 재정운용 기본방향

---

#####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

---

-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
- 이를 통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의 기틀 확립

##### ② 약자복지 강화, 미래 준비 투자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

---

-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, 청년·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약자를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
- 미래 전략기술 확보,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
-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,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
- 첨단강군 육성, 공공질서·안전 시스템 강화, 전략적 ODA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의 차질없는 수행 뒷받침

##### ③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 지속 추진

---

- 타당성·효과성 미흡 사업, 외부(감사원, 국회, 언론 등) 지적 사업, 사회·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 사업 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사업의 양적·질적 개선 추진
- 재정준칙 법제화, 재정 성과관리 강화, 민간투자 활성화·국유재산 적극 활용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지속



## 재정수입

- 재정수입(총수입)은 '23~'27년 기간 중 연평균 3.7% 증가할 전망
  - 국세수입은 '23~'27년 기간 중 연평균 2.7% 증가할 전망
    -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, 경기회복에 따라 '24년 이후에는 증가세 유지 예상
  - 세외수입은 '23~'27년 기간 중 연평균 4.6% 증가할 전망
  - 기금수입은 '23~'27년 기간 중 연평균 5.4% 증가할 전망

< 중기 재정수입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수입	625.7	612.1	661.5	692.0	722.3	3.7
○ 국세수입	400.5	367.4	401.3	423.2	444.9	2.7
○ 세외수입	25.0	27.9	33.6	30.9	29.9	4.6
○ 기금수입	200.3	216.8	226.6	237.9	247.5	5.4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- 조세부담률은 '23년 세수감소 영향으로 낮아진 후,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

<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>

(단위 :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
▣ 조세부담률	23.2	20.9	21.5	21.6	21.7
▣ 국민부담률	31.4	29.3	29.6	29.5	29.3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## 재정지출

- 재정지출(증가율)은 '23~'27년 기간 중 연평균 3.6% 수준으로 관리
  - '24년은 '23년 국세수입 감소로 지출 증가율이 다소 하향, '25년은 회복된 세입기반,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 상향
  - '25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 하향 조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,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 재원 확보
- 의무지출은 '23~'27년 기간 중 연평균 5.0% 증가
  - 고령화·저출산 등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,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
- 재량지출은 '23~'27년 기간 중 연평균 2.0% 증가
  - 4대 분야 중점투자, 민생경제 회복지원, 국정성과 창출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
  - 사업타당성·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은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

### < 중기 재정지출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지출	638.7	656.9	684.4	711.1	736.9	3.6
(증가율)	(5.1)	(2.8)	(4.2)	(3.9)	(3.6)	
○ 의무지출	340.3	348.2	373.3	394.0	413.5	5.0
(비중)	(53.3)	(53.0)	(54.5)	(55.4)	(56.1)	
○ 재량지출	298.4	308.7	311.1	317.1	323.4	2.0
(비중)	(46.7)	(47.0)	(45.5)	(44.6)	(43.9)	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##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□ (재정수지) '24년에는 관리수지  $\Delta 3\%$  초과가 불가피하나, '25년 이후는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

○ '27년 관리수지는  $\Delta 2.5\%$  수준으로, '23년  $\Delta 2.6\%$  보다 개선

※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\* 역시 '25년이후 점차 감소하여 '27년  $\Delta 0\%$ 대 중반으로 '22~'26년 관리계획 수준 유지

\* 통합재정수지 = 관리재정수지 + 사회보장성기금 수지

□ (국가채무) 국가채무비율은 '27년 50%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

○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'25년 다소 증가하나, 그 이후 매년 감소\*

\* 연도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(%p): ('24) +0.6, ('25) +0.9, ('26) +0.6, ('27) +0.5

### <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3년*	'24년	'25년	'26년	'27년
▣ 관리재정수지	$\Delta 58.2$	$\Delta 92.0$	$\Delta 72.2$	$\Delta 69.5$	$\Delta 65.8$
(GDP대비, %)	$\Delta 2.6$	$\Delta 3.9$	$\Delta 2.9$	$\Delta 2.7$	$\Delta 2.5$
※ 통합재정수지	$\Delta 13.1$	$\Delta 44.8$	$\Delta 22.9$	$\Delta 19.2$	$\Delta 14.6$
(GDP대비, %)	$\Delta 0.6$	$\Delta 1.9$	$\Delta 0.9$	$\Delta 0.7$	$\Delta 0.5$
▣ 국가채무	1,134.4	1,196.2	1,273.3	1,346.7	1,417.6
(GDP대비, %)	50.4	51.0	51.9	52.5	53.0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## 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### < 기본 방향 >

- ◇ 건전재정 기조 견지 下 약자복지 강화, 미래 준비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중점 투자
  - ① (사회)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성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,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
  - ② (경제) 핵심 교통인프라 확충, 수출 드라이브 촉진, 12대 국가 전략기술 집중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
  - ③ (행정) 공공질서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,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·역할도 강화하는 한편, 첨단전력 군대 양성
- ◇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핵심 정책과제에 재투자

### 1. [사회분야]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- (보건·복지) 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인상,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, 취약계층 대상 생계·돌봄·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 강화
  - 다문화 가정, 한부모·청소년 부모,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아동 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
  - 소아환자 야간·휴일·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 최종 치료전 사망사고 근절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
- (일자리)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할 의지 없는 청년, 구직청년 등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
  -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성과 임금 개편 등을 지원하고,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유도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
  - 맞돌봄이 확산되도록 육아휴직기간·영아기특례를 확대하고, 근로시간 단축·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일가정양립 지원도 강화

- (교육) 3~5세 누리과정,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,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도 해소
  -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, 국립대학의 시설·인프라도 강화
- (문화·체육·관광) 모태펀드·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 강화 등 K-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, 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대응도 지원
  -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,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·전문 체육 지원도 강화
- (환경) 국가하천 지류 및 지방하천 위험지역을 본격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·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강화
  -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,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,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,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도 제공

## 2. [경제분야]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

- (산업·중기·에너지) 무역금융, 해외마케팅, 디지털 수출 지원 등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,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
  - 효율적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,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프라·인력양성 투자도 확대
  - 중소기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고, 수출지원 등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,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도 지원
- (SOC) 수도권 GTX, 지역 교통인프라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 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지원
  -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·개량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,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 조성

- (농림·수산) 직불금 확대 등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, 전략작물 등 식량안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
  - 청년 농어업인 육성, 스마트 농어업 확산,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
- (R&D) AI, 첨단바이오, 반도체, 디지털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는 혁신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
  - 첨단분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&D 확대

---

### 3. [행정분야]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

---

- (외교·통일)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,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능동적 외교 지원
  -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 등을 위한 ODA를 대폭 확대 추진
- (국방)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,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을 전략적 육성
  -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 등 장병 사기를 진작하고, 병영환경 개선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
- (일반·지방행정)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
  -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으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, 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대폭 확대
- (공공질서·안전) 아동·여성·서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·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,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
  - 대형재난에 대응, 예방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

< 2023~2027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23	'24	'25	'26	'27	'23~'27 연평균
총 지출	638.7 (5.1)	656.9 (2.8)	684.4 (4.2)	711.1 (3.9)	736.9 (3.6)	(3.6)
1. 보건·복지·고용	226.0 (3.8)	242.9 (7.5)	252.2 (3.9)	262.5 (4.1)	273.4 (4.1)	(4.9)
2. 교육	96.3 (14.4)	89.7 (△6.9)	95.7 (6.7)	99.8 (4.3)	104.1 (4.3)	(2.0)
3. 문화·체육·관광	8.6 (△5.4)	8.7 (1.5)	8.9 (1.8)	9.1 (2.7)	9.4 (2.6)	(2.1)
4. 환경	12.2 (2.6)	12.6 (2.5)	12.8 (1.9)	13.2 (3.0)	13.5 (2.6)	(2.5)
5. R&D	31.1 (4.3)	25.9 (△16.6)	27.6 (6.4)	29.5 (7.0)	31.6 (7.0)	(0.7)
6. 산업·중소기업 ·에너지	26.0 (△17.0)	27.3 (4.9)	27.6 (1.1)	28.4 (3.1)	29.3 (3.1)	(3.0)
7. SOC	25.0 (△10.7)	26.1 (4.6)	26.2 (0.1)	27.3 (4.2)	28.0 (2.8)	(2.9)
8. 농림·수산·식품	24.4 (2.9)	25.4 (4.1)	25.7 (1.4)	26.2 (1.8)	26.7 (1.8)	(2.3)
9. 국방	57.0 (4.4)	59.6 (4.5)	61.6 (3.3)	63.6 (3.4)	65.8 (3.4)	(3.6)
10. 외교·통일	6.4 (7.6)	7.7 (19.5)	7.8 (1.3)	7.9 (1.2)	8.0 (1.0)	(5.8)
11. 공공질서·안전	22.9 (2.7)	24.3 (6.1)	24.9 (2.5)	25.8 (3.4)	26.7 (3.4)	(3.8)
12. 일반·지방행정	112.2 (14.3)	111.3 (△0.8)	120.1 (7.9)	124.8 (3.9)	129.3 (3.6)	(3.6)

---

## V. 재정혁신 추진방향

---

### 1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

---

#### 高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엄격한 총량관리

---

- 재량지출 감축, 의무지출 효율화 등 엄격한 총량관리 실시
  - 집행부진, 연례적 이·전용 사업, 관행적 보조·출연·출자 등의 재량지출 사업을 감축하여,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
  -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·반복수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,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의무지출 효율성 제고

---

####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편

---

- 모든 보조사업 대상으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·효과성 원점 재검토하고, 타당성·효과성 미흡사업은 삭감·폐지 등 구조조정
  - 장기간 관행적 지원 사업, 민간·지자체 등 역할재조정 필요 사업, 국회 등 외부 타당성 지적 사업 등 타당성 미흡사업 정비
  -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평가 미흡, 유사중복·집행부진, 전달체계 정비 필요사업 등 효과성 저조사업 정비
-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, 시스템 개선 등 추진
  -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·통보,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
  -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을 통한 국민의 보조금에 대한 정보 투명성 및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



- 신규·기존 보조사업의 실효성, 적격성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평가 실시
  -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 및 기존 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을 통해 보조사업의 심사·평가 강화
  -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(감축, 폐지, 사업방식 변경 등)를 예산에 반영하며, 평가 미대상 사업은 각 부처가 사전점검 실시

## 2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성과관리 강화

---

### 예타제도 개편

- 경제·사회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既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(22.9월)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
  - 예타대상 기준금액 변경(총사업비 500→1,000억원, 국비 300→500억원)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
  -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, 면제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예타 면제 관리 강화

### 핵심재정사업 쏠주기 성과 집중관리

-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\*을 선정하여 쏠주기적으로 밀착·집중 관리하고 이를 통해 5년간 가시적 성과 도출

\*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,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, 장애인 돌봄,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, 산불대응 능력 강화, 틱스(TIPS) 프로그램 등

- 핵심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(~27)를 설정하고, 목표 달성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, 목표달성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
-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작업반\*을 구성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
  - \* 민간전문가, 소관부처(주관·협조부처), 기재부, 조세연으로 구성
- 재정성과점검회의·재정운용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밀착·집중 관리하고, 현장점검\* 수시 실시
  - \* 기재부, 사업부처·지자체, 전문가, 정책수혜자, 대학생 기자단 등 참여
- 핵심재정사업의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연도별 성과관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(매년 6~8월)

---

## 재정사업평가 예산환류 강화

---

- 재정사업 자율평가 단위를 '23년부터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개편하는 등 예산 환류 강화 노력
  - 미흡등급 세부사업에 대해 △10%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,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△1% 삭감
  -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('23년도 평가부터 적용)
-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·재원구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3년 주기로 전체 기금에 대해 제도개선 및 존치 여부 평가 실시
  -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유사성·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폐지·통합 등 권고
  - 평가대상 기금의 개별사업 및 여유자금 등 재원구조를 평가하여 필요시 구조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 권고

## 세입기반 확충

-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은 강화하되, 불필요한 비과세·감면 등을 정비하고,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입 누수 요인 차단
  - 투자·창업, 결혼·출산양육 지원 등 ①경제활력 제고와 ②미래 대비를 위한 조세정책을 통해 중장기 세원기반을 확대
    - \* 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, 기술 혁신형 M&A 요건 완화 등
    -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, 자녀장려금 확대,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
  -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,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
  -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,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·감면 제도는 종료 또는 재설계 추진

## 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

- 각 기금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
  - 회계·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,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
    - 각 기금·회계별 재정상황 점검을 통해 타 회계·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
  -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 추진

---

## 부담금 제도개선

---

- 최근 경제·사회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부담금의 부과 목적,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부담금 제도 정비 시행
  - 부담자 간 형평성, 수입 대비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과 대상·요율, 인센티브 구조 등의 합리적 재설계 추진
  - 예치금, 수수료, 협회비 등 부담금 성격을 갖지 않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
  - 부담금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타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담금은 통합·폐지

## 4 민간 역량 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

---

---

### 민간투자 활성화

---

- 민간투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시장·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에 기여
  - 산업화 시대 주요 시설인 도로·철도 중심에서 산업 및 생활 인프라, 노후시설 개량 등 다양한 신규 대상을 적극 발굴
  -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,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참여 촉진 및 투자 부담 경감
  - 적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 및 선제적 대상사업 관리 등 민간투자 신속 추진체계 마련

---

## 민간·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촉진

---

- 유희·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·매각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의 역동성과 지역발전을 뒷받침
  - 지자체 및 민간 수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은 신속 매각·교환 등 지원
    -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DB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향상
  -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희부지는 장기대부 방식\*의 민간참여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국유재산 개발
- \* 민간기업이 국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개발하고 임대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 + 수익 창출 후 개발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. 국가는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재정수입 확충

---

##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

---

-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약대가 현실화, 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, 업체 권익보호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
  -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(특정규격 자재 비중 1→0.5%)하는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
  -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준금액을 15~25억원에서 30~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입찰·계약절차 부담 완화
  -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하게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'제재금' 제도 도입 등 제재 부담 완화

## 재정준칙 법제화

### □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

\*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('22.9.13) → 국가재정법 개정안(의원입법) 발의('22.9.20)

\*\* 관리수지  $\Delta 3\%$  한도로 두되, 국가채무 60% 초과시  $\Delta 2\%$ 로 축소, 재정의 역할 담보를 위해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 규정

○ 국회 주관 공청회 실시('23.3월), 법안 축조심사('23.3~6월) 등을 통해 법안 주요내용 국회 논의 진전

- 법안 심사과정에서 예외 적용 후에는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,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 마련

○ 지속적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

## 공공기관 재정건전화

### □ 불요불급한 자산 처분,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마련 및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·이행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추진

○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활용도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활용

○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무위험기관 「'22~'26년 재정건전화계획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

○ 공공기관 혁신계획,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(국가재정법 제9조의2)

---

##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

---

- 재정준칙 법제화 완료 후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구축 추진
  -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,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 등 선행 지표 관리를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
  - 적자성 채무,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 보조적 지표를 통해 관리 수지·국가채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각적 재정위험 점검

---

##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방안 수립

---

- 중장기적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세 약화,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개혁 방안 수립
  - 국민의 '삶의 질 제고'와 '건전재정' 등을 목표로 혁신과제 등을 마련하여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 및 미래 재정위험 대비
  - 관행적으로 이어온 재정지출의 구조와 방식의 전환, 민간 자원 및 역량의 적극적 활용, 재정칸막이 해소 등 중점 추진

**(1)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**

-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
  - 생계급여,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, 재산기준·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
    - 일을 통한 탈수급 등 자립지원을 위해 자활근로, 자산형성 사업 등 지속 확대
  -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을 지속 확대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
    -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
  -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돌봄을 지원하고,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
    - 장애인연금 인상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소득안정 지원
-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
  -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부담 완화,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응,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등 강화
  - 한부모·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지원대상 지속 확대
  -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, 취업, 가족소통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
- 소아환자 야간·휴일·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 최종 치료전 사망사고(응급실뺑뺑이) 근절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
  - 달빛어린이병원,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, 소아암 전문 거점 병원을 확충하고,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
-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예방·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, 정신질환자 응급대응·치료·복귀 인프라 구축 등 지원



## 【참 고】 일자리 분야 '23~'27년 재정투자 중점

- 청년고용·빈일자리 투자를 통한 민간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
  - 대학일자리+센터 활용 재학생맞춤형 일자리 지원,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, 청년 일경험 등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
  - 빈일자리 취업지원 등을 통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
- 이중구조,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 뒷받침
  - 대·중소, 원·하청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기반 임금 체계 도입·확산, 상생협력 강화 및 격차 완화 등 지원
  - 근로시간 유연화, 포괄임금 남용 근절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- 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
  - 맞돌봄 확산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
  - 근로시간 단축·대체인력·단축지원 등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부담경감
-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충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
  - 구직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 지속 지원
  - 고용서비스 통합·연계지원을 위한 통합센터, 구직자·기업 도약패키지 지원 상담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
- 노인·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위주 직접일자리 집중지원
  - 노인일자리, 자활사업 등 취업취약계층 참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

## (2) 교육 분야

-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
  - 3~5세 누리과정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다문화·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 포용
  -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,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유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
  -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취업연계장려금,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한 평생·직업 교육 기회 확대
-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, 성과중심 재정지원 확대
  - 학과간, 학교간, 학교와 지역간 벽 허물기 등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체계적 회생 지원
  - 성과배분을 강화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
- 지역중심 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
  - 지자체 주도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
  -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,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하여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
-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
  - AI·디지털 교과서, 에듀테크 기술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의 교육 현장 활용을 적극 지원
  - 해외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, 유학생 유치 활성화, 청년 국제 교류 확대 등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

### [3]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- K-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한류의 지속성·확장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
  - 콘텐츠 IP펀드, 민관합동 전략펀드, 영화 상생펀드 등 정책금융 수단 확충으로 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및 독자 IP 확보 지원
  -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, 해외홍보관, 한류박람회 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연관산업 동반진출 등 전략적 수출지원
- 취약·소외계층 및 지방의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 바우처·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수요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강화
  - 통합문화이용권, 스포츠강좌이용권, 장애인 대상 예술활동·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취약·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
  - 지역 수요맞춤형 문화예술 기반 강화, 공연·전시 확대를 통한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보장 및 문화취약지역 활력 촉진
- 관광시장 완전한 회복 및 지역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
  - K-컬처·치유·전통문화 등 경쟁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매력국가 이미지 제고 및 방한관광 활성화 지원
  -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등 인프라 확충 및 독창적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·육성
- 일상적 체육활동 기반 확충,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, 국제대회 개최·참가 지원 확대 등 생활·전문체육 역량 강화
  -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및 연령별 맞춤형 체육시설·프로그램 확충 등 일상적 생활체육 활동 기반 확충
  -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, 국제대회 개최·참가 지원 확대 등 전문 엘리트 체육활동 적극 지원

#### (4) R&D 분야

- AI, 첨단바이오, 반도체, 디지털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정부 R&D 집중투자
  - 한계 돌파(학습·소통능력, 신뢰성) R&D, 산업난제 해결·메타버스 융합 등 응용서비스,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
  - 바이오헬스에 AI, 빅데이터 등 ICT·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 투자로 신시장 선점
  - 미세공정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, AI반도체 기반 기술 개발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
    - \* 반도체 패키징, 차세대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10년간 장기 투자하는 「초격차 프로젝트」 추진
  -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을 고도화하고, 기존 기술간 연계·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
- 바이오·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(flagship) 추진
  - 고비용·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분야 난제를 혁신적 R&D 지원 시스템 아래 수행하는 KARPA-H 프로젝트 추진
    - \* 美 DARPA형(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) R&D 수행
  -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민간 발사장, 우주 환경시험시설,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
- 국내 연구진·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&D 확대
  -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,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확대
  - 첨단바이오 분야의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「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」를 '팀 코리아'로 추진
    - \*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 확대 등

## (5)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- 첨단전략산업·제조업 집중 투자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
  - 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, 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
  -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 그린산단,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지속 지원
- 수출 드라이브 추진 + 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
  - 무역금융, 해외마케팅, 디지털 수출 지원 등으로 수출 애로를 완화하고, 원전·방산·플랜트 등 유망분야 집중지원
  - 외국인투자, 국내복귀 투자 촉진을 위해 현금지원 인센티브 강화
-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,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
  - 에너지바우처 확대, 주거공간 효율향상 등 에너지 약자 보호
  -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진단 컨설팅 및 고효율 설비 보급 지원 확대
  - 핵심자원 비축 및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, 원전 및 신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
- 글로벌 창업지원,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코리아 추진
  -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신규 조성, 해외창업 사업화자금 신설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
  - 지역 엔젤투자허브 확대, 지자체가 추천하는 예비유니콘 기업 보증 지원 등 지역 벤처·창업 생태계 고도화
-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, 경쟁력 강화 지원
  - 취약차주 대상 저리 대환대출 신설, 고효율 냉방기 보급,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각종 비용 부담 경감
  - 유망 소상공인에 창업·팀빌딩 등을 종합 지원하고, 스마트 상점·공방, e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지속

## (6) SOC 분야

-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
  - GTX 기존 노선(A·B·C)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노선 확대를 검토, 대용량 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혼잡 완화 지원
  - 신규 고속도로·국도 확충,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 시티 1시간,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
-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·개량 적기 추진,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
  -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·터널 유지·보수 강화, 지하차도 침수방지 시설 확충으로 도로 환경 안전성 제고
  - 선로시설·전기설비 집중개량으로 열차 탈선 방지, 안전난간 등 작업자 안전시설 확대
-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
  - 이용횟수 비례로 교통비를 할인하는 K-Pass 도입으로 편의성 개선 및 교통비 부담 경감 확대
  -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비 지원,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
-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
  -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지원 및 자율차 상용화 지원 확대
  -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항공교통지원 시설 구축 및 실증노선 운영,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도입

## [7]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- 직불금 확대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으로 농어가 소득보호
  -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,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지원 확대
  - 은퇴직불 도입으로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지원하고,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쌀 적정생산 유도로 농업 경쟁력 제고
  -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관리를 선제적·과학적으로 전환하고, 일시적 수급불안 대비 공공비축 등 대응능력 강화
- 청년 농어업인 육성,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 마련
  - 청년의 농어촌 유입·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 농지, 창업, 주거, 자금 등을 두텁게 지원
  -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한 농식품기업 발굴·육성·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, 스마트팜 창업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 도모
  - 국산 농산물 품질 제고 및 수출농가 조직화 등 수출경쟁력 제고
-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업인 복지 지속 지원
  - 농어촌 유해시설 정비,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농어민 노후대비를 위해 건강·연금보험료 지속 지원
  -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, 농촌 거주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
-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는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
  -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배수개선 등 수리시설 보강으로 농축산 재해를 예방하고, 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안전망 확충
  -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확대 등 산사태 예방 및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확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

## [8] 환경 분야

-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·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
  - 상시화된 극한 호우 대응을 위해 홍수·침수 방지 인프라 지속 보강
    - \* '23년 충청·전북·경북 홍수, '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, '20년 남부지방 장마 등
  -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지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인프라 등에 투자 확대
  -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은 공급
    - \* '22~'23년 남부지방 가뭄('74년 이후 최장가뭄), '15~'17년 충남 서부권 가뭄 등
  - 하수재이용 등을 통한 신규 수자원 확보 노력 지속
-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,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  - 탄소중립·물·순환경제 등 3대 녹색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, 수출 인프라·해외실증·수출금융 등 전주기 수출지원체계 구축
    - \* 국내 환경산업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('16~'21년) 0.74% 수준으로 정체 상태
  - 저탄소 기술개발\* 투자 확대 및 기업 설비전환 지원, 글로벌 환경규제\*\* 대응 및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
    - \* 탄소중립기술에 '25년까지 쏠세계가 매년 2조 달러 투자 예상(맥켄지, '22년)
    - \*\* (EU) 핵심광물 역내 재활용법(23.3월), (UN)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 추진(~'25년) 등
- 환경 취약계층 복지 강화, 대국민 쾌적한 환경서비스 지속 제공
  - 환경보건 피해자 안정적 구제 지원 및 환경취약지역 지원 확대
  - 23번째 국립공원(팔공산 국립공원) 지정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인프라 투자 강화



## (9) 국방 분야

- 北 위협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장군 육성 지원
  - 北 핵·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압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\*
    - \*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 강화, 전투기 성능개량, 특수헬기 작전능력 제고 등
  - 드론 등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, 우주·사이버 등 미래 전장 환경 주도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 등 비대칭 전력 보강\*
    - \*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, 보병부대 무인차량 도입, 근거리정찰드론, 초소형위성 개발 등
- 수출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 추진
  - 국방 신산업(우주·AI 등)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, 부품 국산화 및 수출 무기체계 개조·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화 지원
- MZ세대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 여건 조성을 위해 의·식·주 등 지속 개선
  - 병영생활관을 2~4인실로 지속 개선 및 플리스형 스웨터 쏘 장병 확대 보급, 얼음정수기를 전군에 신규 보급
  - 녹물관사 제로화 등 주거여건 획기적 개선 및 장려금 인상을 통해 초급간부 지원을 제고
    - \* '녹물관사' 제로화, 노후숙소 전량 개선, 모듈러 숙소 건립,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(3년이상 복무 → 3년미만 간부 포함),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
-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리적 보상 강화
  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병봉급(사회진출 지원금 포함)을 '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

## [10] 외교·통일 분야

-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추진
  -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에 동참하고, 향후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하여 對우크라이나 지원 확대
  - 우리 기업·인력 진출에 ODA를 활용하여 청년인재 해외진출 및 우리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
- 2024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, 2025 APEC 의장국 등 국제사회 내 위상제고를 위한 능동적 외교 지원 확대
  - 2024-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, 인도-태평양 전략 이행으로 글로벌 가치·국익 외교 본격 전개
  - 양자·다자간 경제협력 등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·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 및 의제 설정 주도
-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·보호체계 강화
  -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 모국 초청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
  -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육·문화·경제·사회 등 다양한 분야 교류 및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
- 객관적인 북한인권 정보제공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
  -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북한인권전시관 건립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 관심 견인

## [11]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- 마약·보이스피싱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·대응을 강화하고, 아동·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
  - 스토킹, 보이스피싱,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추적·사이버수사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
    -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, 수사·감시 장비 도입, 재활 치료 등 예방 → 수사 →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 지원
  - 아동·여성·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상담·조사, 진술 조력 및 법률·경제적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
    - 수용시설 과밀·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, 외국인 보호 시설 개선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
  
-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호우 피해에 대응·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,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심침수 방지 강화
  -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, 붕괴위험 급경사지·위험저수지 발굴 및 정비 확대
  - 도심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지속 설치하고, 침수우려 위험도로 방지사설 조기 도입
  
-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, 지진·화재 등 안전훈련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력 제고
  - 재난관리·안전정보 등을 통합하여 재난상황시 신속대응 지원,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맞춤형 제공 추진
  - 대규모 지진대응·실화재 훈련장 건립 등을 통한 소방력 향상 도모, 재난대비 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평가·컨설팅 강화

## [12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-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
  - \* (예시) 스마트팜,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, 복합 관광리조트 등
- 빈집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, 로컬창업공간, 마을쉼터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관 협업 지원
- 생활인구\* 확충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삼기 위해 생활인구 빅데이터 수집·결합·개방
  - \*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
-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, Any-ID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
  - 지자체 CCTV에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,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투자 확대 등 과학적 재난관리 지원
  -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확대도 적극적 추진
- 수해 예방을 위해 비탈면, 산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, 침수 위험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폭 확대
  - 재난대책비, 풍수해보험 확대 등 재난대응·회복 지원 확대
  - 대규모 지진대응·실화재 훈련장 건립 등 소방 대응력 제고, 지역별 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·개선 추진
- 소상공인 채무조정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
  -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

## 【별 첨】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

분야	지 표 (예 시)	'23년	'27년
보건·복지 · 고용	▪ 기초연금 수급자수(만명)	665	817
	▪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인원(만명)	14	17
	▪ 공공보육 이용률(%)	37	50
	▪ 국민연금 수급자수(만명)	677	905
교육	▪ 글로벌 대학 수(개교, 누적)	10	30
	▪ 평생교육바우처(만명)	6	10
문화·체육 · 관광	▪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(조원)	156	200
	▪ 문화콘텐츠산업 수출규모(억달러)	132	250
	▪ 외래관광객 수(만명)	1,000	3,000
	▪ 국민생활체육참여율(%)	64.0	68.4
R&D	▪ 첨단전략분야 R&D 투자(조원)	5.0	6.0
	▪ Flagship 프로젝트 투자(조원)	-	0.6
	▪ 글로벌 R&D 투자(조원)	0.5	2.2

분야	지 표 (예 시)	'23년	'27년
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	▪ 스마트공장 수준 제고 (고도화 1 이상, 누적)	8,000	12,000
	▪ 반도체 아카데미 인력양성(누적)	520	3,720
SOC	▪ 고속도로 연장(km)	4,276	4,763
	▪ 철도 연장(km)	4,370	4,924
농림 · 수산 · 식품	▪ 청년농 육성(만명)	1(수준)	3(누적)
	▪ 어촌 신활력 증진(개소)	65	300(누적)
환경	▪ 무공해차 누적 보급(만)	71.6	233.1
	▪ 온실가스 배출량(백만톤)	633.9	585.0
국방	▪ 노후시설 개선(개) / 모듈러 숙소(실)	14,473 /40	41,780 /250
	▪ 과학화 훈련장 확충(개소)	5	13
외교 · 통일	▪ ODA 총 규모(조원)	3.57	5.30
공공질서 · 안전	▪ 교정시설 과밀수용률(%)	107.6	104.0
	▪ 재해위험지역 정비(개소, 누적)	4,319	4,919
일반 · 지방행정	▪ 지능형 CCTV(만대)	13	53
	▪ 지역활성화투자 펀드(모펀드, 조원)	-	1.2